

지역 **메아리**



김제시 농악경연대회 열려

김제시가 지난 20일 실내체육관에서 각 읍면동 농악단과 시민 등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농악경연대회가 열려 흥겨운 농악소리가 지평선에 울려 퍼졌다.

이날 대회는 지역별 소규모 농악단의 활성화와 우리지역 전통 문화 예술 보존 계승과 호남 우도농악 본 고장으로서의 옛 명성을 회복함으로써 김제시 이미지 제고와 시민의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해 마련한 행사로 한국국악협회 김제시지부, 도지정무형문화재, 우리문화연구회 등 4팀의 특별공연과 함께 각 읍면동 농악단들이 그 동안 갈고 닦은 기량을 마음껏 선보이며 열띤 경연을 펼쳤다.

읍면동 농악단 11팀이 참여한 이번 대회는 농악 관련 전문예술인과 교수로 구성된 심사위원의 엄정한 심사를 거쳐 광활풍물사랑 농악단(대표 정만재)이 영예의 대상을 신중환마을 농악단이 최우수상, 금산면 모악예술단 농악단이 우수상을 수상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내년 예산 6249억원 확정

김제시, 사회복지·농업분야에 중점 편성... 안전분야 예산 증액

김제시는 지난 19일 제214회 김제시 의회의 의결을 받아 2018년 당초예산을 6,249억원 규모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2018년 당초예산의 경우 2017년 당초예산 6,059억원보다 총 190억원(3.13%)이 증가한 것으로 일반회계는 5671억원으로 전년 대비 267억원(4.95%)이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578억원으로 전년에 비해 78억(△11.88%)이 감소한 규모이다.

전체 예산 중 일반회계 세입은 지방세 및 세외수입이 640억원, 지방교부세 2,660억원, 조정교부금 90억원, 국도비 보조금 2,110억원, 순세계잉여금 및 내부거래 170억원으로 총 5671억원이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는 하수도 공기업에 대한 일반회계 전입금이 31

억 감소하는 등 578억원으로 편성되었는데 특히 지방세 및 세외수입 세입은 전년 대비 108억이 늘어나 재정 건전성이 전년에 비해 증가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세출예산은 국가 정책에 발맞추어 일자리 사업 등의 민생 안정을 위한 예산편성이 이루어졌으며, 특히 전년도 지방채 전액상환 및 국도비 사업확보 등을 통해 마련한 재원을 바탕으로 시의 특성에 맞는 사회복지 및 농업분야에 중점적으로 예산을 편성하였다.

그 결과 사회복지분야는 기초연금금이 469억 편성되는 등 전년 대비 25.60% 증가한 1,452억이 편성되었으며, 농업 분야 또한 논 타작물 재배지원 42억을 새로이 확보하는 등 전년대비 21.57% 증가한 1,223억 규모로 예산이

편성되었다.

그 외에도 교육, 보건, 문화및관광 분야, 도로, 수자원 등의 부문도 모두 전년대비 20% 이상 예산이 증액 편성되어 더욱 시민의 수요에 응하는 형태의 예산이 편성되었다.

특히 근래 지진으로 인해 요구가 증대하고 있는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 예산이 전년대비 107%가 증가한 점은 특기할 만하다.

한편 이후천 김제시장 권한대행은 "내년도 예산은 정부 예산 방향 및 '새만금행복도시 김제'에 걸맞은 복지, 일자리예산 등에 초점을 맞췄다"며, "예산을 신속하게 집행하여 시민 경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제=곽노태 기자



“연지곤지 찍어봤어요”

완주군, 청소년 대상 전통혼례 체험

완주군(군수 박성일)이 관내 청소년을 대상으로 전통혼례 체험을 실시, 전통의 의미를 되새겼다.

21일 완주군은 지난 20일 전통문화체험장에서 상관중학교 학생 4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전통혼례를 현대 방식으로 재구성한 청소년들의 이야기기행 혼례식을 열었다고 밝혔다.

이날 체험은 오전 9시부터 약 2시간 동안 4인 1조로 전통놀이 지도사들에게 전통혼례 이야기를 듣고 전통 혼례복장을 착용한 후 혼례식 체험, 잔치국수를 만드는 체험이 진행됐다.

학생들은 민속촌에서만 볼 수 있던 전통 혼례식을 직접 체험하며 흥미로워했고 적극적으로 참여

해 흥겨운 잔치집 분위기를 자아냈다. 완주군에서 주최하고 '전통문화컨텐츠연구소 연'이 주관하는 이번 프로그램은 전통혼례를 접해 볼 기회가 없는 청소년들에게 전통적 가치를 온몸으로 느낄 수 있는 체험의 장을 제공했다.

김재열 관공체육과장은 "완주 전통문화체험장은 다양한 전통 문화를 생생하게 즐길 수 있는 완주군의 숨겨진 보석 같은 명소다"며 "내년에도 청소년뿐만 아니라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전통 문화 체험 프로그램을 확대해 우리 고유의 전통놀이를 즐기고 함께 어우러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완주=이종복 기자

완주군, 가족친화인증기관 선정

가족친화 직장문화 조성 호평

완주군(군수 박성일)이 여성가족부에서 주관하는 '2017년 가족친화인증기관'으로 선정됐다.

21일 완주군에 따르면 가족친화인증은 여성가족부가 직장과 가정의 양립을 위해 자녀의 출산·양육지원, 유연근무제도, 가족친화제도 등을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 및 공공기관에 대해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다.

특히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한국경영인증원의 현장 심사와 인터뷰, 실행 실적 데이터 검증 등 까다로운 심사를 거치게 된다.

이번 평가에서 완주군은 최고경영층의 관심 및 의지, 자녀 출산 및 양육지원, 가족친화 직장문화 조성 등 제도 실행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그동안 완주군은 가족 초청행사, 가족캠프, 유연근무제 시행, 신규공무원



완주군(군수 박성일)이 여성가족부에서 주관하는 '2017년 가족친화인증기관'으로 선정됐다.

임용식에 가족을 초청하는 등의 행사를 통해 직장과 가정의 양립을 위해 노력을 기울여왔다.

박성일 완주군수는 "가정이 행복해야 직장에서도 행복할 수 있다"며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해 앞으로도 더욱 다양한 복지 제도를 마련하고 직원들의 행복을 위한 노력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완주=이종복 기자



제이앤에스 엔지니어링 주식회사 김제사랑장학재단에 장학금 기탁

김제사랑장학재단(이사장 권한대행 이추천)은 21일 제이앤에스 엔지니어링 주식회사(대표 임순미)가 "새만금 중심도시 김제를 이끌어갈 인재양성에 필요한 장학사업에 써 달라"며 장학금 2백만 원을 기탁했다고 밝혔다.

제이앤에스 엔지니어링은 2016년 봉황농공단지에 설립된 마구조물을 설치하는 기업으로 주변에 어려운 이웃을 위한 나눔 사업을 추진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역업체로서 지역주민과 더불어 살아가고 있도록 환경정화 활동 및 봉사활동도 꾸준히 실천하고 있으며, 지역현원사업의 일환으로 지역 청소년을 위한 장학금을 기탁하게 되었다. /김제=곽노태 기자

김제시보건소 정신건강복지센터 송년행사 진행

김제시보건소(소장김형희)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는 송년행사를 통해 정신건강복지센터 사업과 정신질환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돕고 작품 전시와 발표를 통해 2017년 한 해 동안 회원들의 노력과 성과를 확인하고 회원들의 노력을 위로해 주는 시간을 가지기 위한 송년행사를 진행했다.

김제시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는 이날 20일 회원 및 가족, 관계자 등을 한자리에 초대해 지난 1년간의 성과보고 시간을 가지고 성과를 기반으로 시상식을 실시하였다.

회원들의 성실한 모습을 알 수 있는 개근상과 출산수범상, 회원들 사이의 인기를 확인하는 인기상, 도전! 마음

벨 퀴즈 프로그램에서 우승하는 회원에게 MVP상을 시상하고 한 해 동안 김제시정신건강복지센터 회원들을 위해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김제시보건소 건강증진과, 구강보건팀, 서로돕는마을에 감사장을 전달하였다.

또한 주간재활 프로그램의 가족공예, 향초, 석고방형제 등 다양한 작품이 전시 되었으며 가족 및 회원의 즉석사전을 찍어주는 일일 사진관이 운영되었다. /김제=곽노태 기자

완주군, 귀농귀촌인 음식 재능기부 펼쳐

완주군의 귀농귀촌인들이 지역 아이들을 위해 음식 재능기부를 펼쳤다.

21일 완주군은 귀농귀촌인의 역량강화를 위해 개설한 '팜파티 음식 배우기' 교육생들이 지난 20일 완주농자 지역아동센터 아동들을 위해 음식 나눔 행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날 교육생 12명은 지역에서 생산된 재료를 기본으로 아이들이 좋아하는 음식을 직접 준비하고 풍선 장식 등 즐거운 파티 분위기를 연출해 아이들에게 특별한 추억을 선물했다.

이신미 교육생은 "지금은 농사만 짓고 있지만 앞으로는 체험농장을 운영하는 꿈을 가지고 있어서 교육을 받게 됐다"며 "교육을 통해 다양한 것을 배웠는데 이번 기회에 지역아이들에게 추억을 선물하게 돼 무척 기쁘다"고 말했다.

송이목 농업농촌식품과장은 "귀농귀촌 세대 중 농촌에 큰 활력이 되는 40대 이하 젊은 층이 전년도 700세대에 비해 815세대로 증가했다"며 "소설



굿즈 플랜·공동체 활성화 등 그에 맞는 토대를 만들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완주군에서 진행한 귀농귀촌인 역량강화 프로그램은 농촌생활기술(목공, 용접) 교육, 팜파티 플래너, 팜파티 음식 교육, 재방반 교육 등 농촌 생활에 필요하거나 농촌에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교육 과정으로 지난 11월부터 2개월 동안 진행됐다. /완주=이종복 기자

진안고원

고향의 정(情)이 살아있는
진안고원 고향 할머니장터

장~ 보러 오세요

운영일자: 매 장날 운영(4,9일장)
장 소: 진안고원시장 중앙광장 내

진안고원 청정농산물 판매

행사문의
진안군청 전담산업과
063-430-2951